

빛 지우는 정책 성공할까



이 정 혁

西村브리핑

“빛은 임금님도 책임 못 진다”는 속담이 있다. 한번 불어난 빛은 누구도 대신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빛은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는 수단이지만 소득 감소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겹치면 쉽게 족쇄가 된다. 원금을 갚으려 또 빛을 내고, 이자를 막으려 고금리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민 채무 정책이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신용회복기금’,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문재인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기금과 신용사면’,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까지 명분은 ‘서민의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였다. 정책도 연체기록 삭제와 이자 조정에서 원금 감면, 장기연체채권 소각으로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빨리 탕감해줘야 정상 경제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회수 불가능한 장기채권을 계속 추심하는 것이 채무자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경제에도 손해라는 논리다.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

체된 원금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추정 대상은 113만4000명, 채권 명목금액은 16조4000억원이다. 정부가 이를 모두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은 아니다.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상환능력이 없으면 전액 소각하고, 여력이 있으면 일부 감면 뒤 분할 상환한다.

서민 채무 정책은 선의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25년 말 연체기록이 삭제된 292만8000명 가운데 2026년 1분기 48만3000명, 16.5%가 다시 연체했다. 다만 이들은 원금을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라 연체금을 모두 갚은 뒤 기록 삭제를 받은 차주다. 재연체율이 높다고 정책을 실패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재연체율 16.5%를 가볍게 볼 수도 없다. 연체기록을 일괄 삭제하면 일시적 충격으로 연체한 사람과 반복적으로 감당 못할 빛을 진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그 비용은 성실 상환자의 금리와 금융회사의 총당금,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면이 반복되면 ‘버티면 또 구제받는다’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

신용점수를 회복시킨다고 소득과 매출이 자동으로 늘지는 않는다. 생활비를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매우던 사람이 다시 대출받게 되면 금융 복귀가 재기의 통로가 아니라 부채

재중전이 될 수 있다. 신용사면을 고용·복지·주거 지원, 저금리 전환대출, 소상공인 경영개선과 묶어야 한다.

해법은 탕감과 추심의 양자 택일이 아니다. 신용사면 뒤 ‘재기 관찰기간’을 두고 소득 흐름과 공공요금 납부, 임대료와 매출 회복 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초기 대출한도와 금리는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성실 상환 실적이 쌓이면 조건을 개선하는 ‘신용 복원 사다리’도 필요하다.

반복 수혜에는 차등을 줘야 한다. 질병·실직·폐업·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와 과도한 차입·상습 연체를 구분해 전자에는 재조정 기회를 주되 후자에는 감면율을 낮추거나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금융회사에도 책임을 물어 부실률이 높은 회사에는 기금 분담률을 높이고, 무리한 대출이 확인되면 채권 매입가 격을 낮춰야 한다.

모든 신용사면과 채무감면 정책에는 성과표가 붙어야 한다. 지원 인원과 탕감액뿐 아니라 1년·3년 뒤 재연체율, 취업률, 사업 유지율, 소득 증가율을 공개해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없애줬느냐가 아니라 다시 빛의 굴레로 돌아가지 않게 했느냐다.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 탕감도 냉혹한 추심도 아닌 ‘조건 있는 재기’다.

/linh@metroseoul.co.kr

민주당의 다음 총선 공천권은 누구에게



기지 수첩

박 태 홍
(정치부)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 대회가 순회경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새 여당 대표의 이재명 정부 2~4년 차 시기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정부 중·후반기에 실시되는 23대 총선 공천권을 쥔다. 선거 구도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가 맞붙는 ‘명청대전’로 짜여졌다. 이에 누가 당 대표가 되냐에 따라 현역 의원의 차기 공천 유불리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총선 공천권의 중요성은 단순히 국회의원 ‘밥줄’에 그치지 않는다. 23대 총선이 끝난 후 바로 22대 대선의 열기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 총선에서 안정적 승리를 거두면 당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다. 수도권 등에서 전세가 뒤집혀 의석수가 쪼그라들면 정권 재창출의 희망이 꺾인다. 당 대표 임기를 넘어 향후 수년간의 한국 정치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 국면이다.

그렇기에 당 대표 후보들은 ‘1인1표제’와 ‘선호투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선거에서 사활을 걸고 승리 전략을 펼치고 있다.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의 안정적 뒷받침을 강조하며 정청태 후보를 압박하는 가운데, 정 후보는 자신의 지지층 관리당원을 최대한 결집시켜 과반 혹은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아야 당 대표 연임에 가까워진다.

이미 지난 전대에서 명픽(이재명의 선택) 당 대표 후보였던 박찬대 후보를 관리당원의 압도적 투표로 따돌렸고 이번 예비경선에서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가 모두 본선에 진출하는 등 결집력은 확인됐다. 관건은 정 후보의

총청, 호남, 수도권에서 타 후보와 격차를 벌리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정 후보와 친청계를 ‘반명’으로 프레임을 씌워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신천지 전대 개입설’을 띄우고 지지층이 이를 친청계와 연계 짓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친청계의 결집을 확인한 김 후보는 중도층 당원을 포섭해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도 지지층이 상당수 결집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선호투표제 하에서도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

한편, 전당대회가 끝나도 새 지도부가 맞이할 현실도 녹록치 않다. 지선에서 2030 세대 민심 이반은 확인됐다. 정부의 부동산·자본시장 정책의 신뢰성은 흔들리고, 야당은 대통령 공소취소·연임 개헌을 우려하며 결집하고 있다. 위기에서 경쟁은 더 치열하다. 과연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건 누구일까.

/pth7285@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31일 (음 6월 1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비굴함은 패함보다 못합니다. 60년생 파트너를 돌보아 주세요. 72년생 부부간에 화합으로 같이 나들이를 나가면 좋습니다. 84년생 약간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9년생 세상을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61년생 일인이 막히니 무리하지 말고 건강을 조심하세요. 73년생 검소한 생활을 하세요. 85년생 주변에게 배플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50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얻습니다. 62년생 이성간에 마찰은 대화와 선물이 보약입니다. 74년생 불의의 사고를 조심하고 안전운행을 하세요. 86년생 고집을 버리면 화가 됩니다.



51년생 길성이 몸에 비추니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3년생 고집쟁이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75년생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87년생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52년생 주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64년생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76년생 밖에 일보다 집안에 무순일이 있나 살펴보세요. 88년생 현실적이면서 낭만적인 삶을 사세요.



53년생 너무 무게 잡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65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77년생 모험심이 생깁니다. 여행을 떠나세요. 89년생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54년생 아직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66년생 마음을 편히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세요. 78년생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90년생 친구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세요.



55년생 신선한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67년생 몸과 정신이 맑으면 마음이 평화를 습니다. 79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세요. 91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만 주의하면 좋은 하루가 될것입니다.



56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68년생 방해하는 자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80년생 시간이 흐름수록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92년생 인내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57년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69년생 힘든 상황이 많이 닥칩니다. 81년생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93년생 근면성이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58년생 뜻하는 바대로 밀고 나가세요. 70년생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82년생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94년생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내는 이루게 될것입니다.



59년생 욕심을 버려야 할것입니다. 71년생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할 때 입니다. 83년생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95년생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조심하고 재물을 감시하세요.



김상회의四季

관우 신앙

관우신앙은 관제신앙(關帝信仰)으로 승격하여 부르기도 한다. 신앙이 탄생한 배경에는 원나라 때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 (三國志演義)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관우가 더할 나위 없는 지덕과 무용을 겸비한 것으로 비치게 된 것은 누가 뭐래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폭발한 소설 삼국지연의의 역할을 부인할 수가 없다. 물론 당나라 때도 도교가 유행하자 관우가 신격화된 것이며, 외침이 잦았던 송나라 때에는 국가 차원의 호국신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심겨 있었지만, 삼국지연의의 소설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중국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성품을 지닌 영웅의 모습은 항구한 것으로 고정되었고, 명나라에 들어서서는 산시성 진상(晉商)들에 의해 급기야는 재신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 임진왜란을 겪으며 관제신앙을 처음 접했다는데, 당시 조선에 출병한 명나라 군인들이 주둔지에 관우 사당을 짓고 기도를 올렸다는데, 관우신앙의 추종자였다고 한다. 이유인즉슨, 1882년 임오군란 발발하자 성난 군중이 민씨 일가를 잡으러 다니자 민씨는 궁녀 차림으로 충주로 도피했다. 그 상황에서 민씨는 무당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그 무당은 “곧 대궐로 복귀하실 것”이라고 점사를 낸다. 화한하게도 청나라의 개입으로 민비는 50여 일 만에 환궁한다. 민비는 감읍하였고 고종은 그 무당에게 진실로 영험하다는 의미로 진령군(眞靈君)이라는 작호를 내렸다. 그런데 그 진령군이라는 무녀는 자신이 관우의 딸이라 하였다.

전남 강진과 남원, 경북의 성주와 안동은 물론 서울 최초의 관우 사당인 남포에도 이 시기에 관우 사당이 건립되었으며, 명나라 황제(신종)가 금 4천냥을 하사해 건립한 것이 지금의 동묘라 한다. 동묘에 가보면 금동관우상이 있는데 높이가 2m를 훨씬 넘긴 거작이다. 조선 말기 고종과 민비가 관제신앙의 추종자였다고 한다. 이유인즉슨, 1882년 임오군란 발발하자 성난 군중이 민씨 일가를 잡으러 다니자 민씨는 궁녀 차림으로 충주로 도피했다. 그 상황에서 민씨는 무당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그 무당은 “곧 대궐로 복귀하실 것”이라고 점사를 낸다. 화한하게도 청나라의 개입으로 민비는 50여 일 만에 환궁한다. 민비는 감읍하였고 고종은 그 무당에게 진실로 영험하다는 의미로 진령군(眞靈君)이라는 작호를 내렸다. 그런데 그 진령군이라는 무녀는 자신이 관우의 딸이라 하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8		5	2	6			
								1
3						8	7	
	3		6			9		
8			3		9			5
		6			4		1	
	7	8						3
5								
			4	5	7		2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1	2	9	8	6	9
9	8	2	6	8	1	2	9
6	6	9	2	1	8	2	9
2	1	6	8	2	9	9	6
9	9	2	6	2	6	1	8
8	6	9	1	9	2	6	2
2	2	8	1	8	9	9	8
1	9	9	8	6	2	6	2
6	6	8	9	2	2	8	1

8	2	6	6	1	8	2	9	9
9	8	2	2	9	8	6	1	
6	1	9	9	6	2	8	2	
2	6	8	9	1	8	6	2	
2	6	9	8	2	9	1	6	
9	8	1	2	6	2	9	8	
6	9	2	8	8	1	2	9	
8	9	8	1	2	9	6	8	
1	2	8	6	2	9	8	8	